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생방송 예배: <https://www.fumc.net/live>

**02. 2024년 사순절·부활절 예배 안내**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3월 25일(월)~30일(토) 06:00am

\*성금요일예배: 3월 29일(금) 08:00pm

\*부활주일예배: 3월 31일(주일) - 1~5부 예배(세례·입교식 3부)

\*사순절 온라인 목상영상: 사순절 기간 목상을 위한 1분 영상을 매일 보내드립니다. 영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3. 부활주일 세례·입교자 교육 안내**

\*일시: 3월 10일, 17일, 24일 3부 예배 후 - 3주간 \*장소: 컨퍼런스 룸

\*대상: 영아~성인 등록교인 중 세례 및 입교 받지 않은 이

\*문의: 목회실 또는 심데이빗 장로

**04. 자녀교육 세미나**

\*주제: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 되기 \*강사: 담임목사

\*일시: 3월 10일(오늘) 12시 \*장소: 3층 \*대상: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05. 3월 소그룹 리더교육**

\*일시: 3월 17일(다음 주일) 12:40pm \*장소: 교육관 3층

\*강사: 담임목사 \*대상: 교구장, 속·부속장, 큐티리더, 믿음의 친구들 리더

**06. 3월 중보기도 팀장 모임**

\*일시: 3월 23일(토) 06:50am \*장소: 2층 컨퍼런스룸

\*인도: 담임목사 \*대상: 중보기도 팀장

**07. 볼리비아 단기선교 안내**

이번 여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볼리비아 아동 결연을 맺는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펼칠 것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목회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4년 8월 19일(월)~23일(금) \*대상: EM, 중고등부, 청년부 및 성인

\*신청 마감: 2024년 3월 24일 \*문의: 목회실

**08. 미주 기아대책(KAFHI)주관 빈곤 아동 결연**

볼리비아 도시 빈민 아이들과 후원자 결연 맺기가 금년에 100명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9. 3월 남·여선교회 정기 월례회**

오늘(3월 10일) 1, 2, 3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10.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매주 (월)~(금) 새벽기도 후 \*장소: 1층 새가족실

\*중보기도 신청함은 1층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11. 주차장 이용 안내**

주일예배시 차량이용 증가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가족 및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나안 주차장과 월드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우측 지도 참조)

**12. 신앙의 BASICS 캠페인**

1) 예배시작 10분 전 도착하기, 예배시작 전 핸드폰 진동으로 하거나 끄기.

2)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주일예배 참석하기

3) 속회, QT모임, 믿음의 친구들 참석하기

4) 소그룹리더교육, QT리더 ZOOM미팅 참석하기

5) 대표기도, 헌금위원, 수요간증 등 교회 사역 적극 참여하기

6) 성경일독표 따라 성경읽기, 성경퀴즈 참여하기

##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 <수요일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수요일예배는 성도님들의 QT나눔 및 신앙생활 간증과 함께합니다.

\* 3월 13일 간증자: 윤관호 장로 \* 설교: 김정호 목사

\* 수요일 저녁: 8시 / 생방송 <https://www.fumc.net/live>

날짜	3월 13일	3월 20일
간증자	윤관호 장로	유영옥 권사

### <Q.T 리더 ZOOM미팅> Q.T Leaders Zoom Meeting

\* 리더: 담임목사 \*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 매주(화) 08:00pm

\* 대상: 모든 소그룹 리더(교구장, 속장, 부속장, QT리더) 및 위원장, 임원, 사역자

### <새벽기도회 안내> Early Morning Service

큐티 교재 (기쁨의 언덕으로) 사용 / 새벽 6시 (월~토)

\* 생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umc.net/live>

### <설교 안내>

3/3 예수의 거룩한 분도	요한복음 2:13-22 (출20:1-17; 시19편; 고전1:18-25)
3/10 믿는 자마다 영생	요한복음 3:14-21 (민21:4-9; 시107:1-3, 17-22; 엡2:1-10)
3/17 예수의 영광	요한복음 12:20-33 (렘31:31-34; 시119:9-16; 히5:5-10)
3/24 나귀타신 예수	마가복음 11:1-11 (시118:1-2, 19-29)
3/31 죽음을 이긴 예수	요한복음 20:1-18 (사25:6-9; 시118:1-2, 14-24; 행10:34-43)

### <주일예배 대표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3/10	윤관호 장로	양정임 권사	김진수 권사
3/17	심혜원 권사	김동찬 집사	한만웅 집사
3/24	복영미 권사	장혜택 장로	양학모 집사

헌금위원	양영자 권사	윤경희 권사	배성자 권사
------	--------	--------	--------



●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월드 주차장  
38th Ave. 선상  
Parsons Blvd.와 147가 사이

## 모임안내 MEETINGS

###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live/>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 (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 교육부 예배 및 모임

####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 미만)	11 am
유아부(만3세 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Vision Center)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87.7  
(엡 FM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ewyork.net](http://www.cbsnewyork.net))  
-9 am/7 pm

Danbi Christian TV(Spectrum Ch. 1487)

NY 주일 10 pm  
월요일 12 pm(정오)

LA 주일 7 pm  
월요일 9 am

##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

담임목사 김정호

지난 주간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1890년도에 채택된 네비우스 선교 정책(Nevius Methods)의 '3자 원칙'을 생각했습니다. '3자 원칙'은 자립(Self-Support), 자치(Self-Government), 자전(Self-Propagation)입니다. 이와 더불어 네비우스 정책의 핵심은 성경공부이고 성경에서 배운 것 생활 실천이 있어야 자립 자치 자전이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바닥에는 3자 원칙에 따른 한국인 스스로 다스리는 자치,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전,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라고 산족 교회를 방문해 보니 그 마을 200여 명 전원 모두가 교인입니다.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핍박받고 있는 카렌족과 마찬가지로 라오족은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한국 서울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존 위락 담임목사의 꿈을 물으니 아직도 산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라오족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을 가까운 곳에 땅이 나왔는데 구입해서 50여 가정이 산에서 내려와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동해 도울 길을 생각하는데 미주기아대책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님이 "라오족은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비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합니다. 열악한 현실이지만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목사들이 많이 배출된 종족이니 자립 자치 자전의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년 전에 가난한 나라 여성들을 성매매에 팔리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립과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선교를 위한 지정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헌금을 하신 장로님 따님이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어야 했던 2차대전 당시 동남아에서 끌려온 여성들의 고난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과거 고난과 고통의 역사가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 여성들에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국 관계자들과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선교센터를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다. 그냥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후러싱제일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 중요합니다. 예대방이나 선교센터 세워놓고 방치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교 프로젝트를 지속 시켜나갈 인적자원과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앙마이에서 18년 사역한 기아대책 파송 이경훈 선교사님이 후러싱제일교회의 비전을 소명받아 사역할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선교센터 세울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선교전문가들은 선교 후원을 잘못하면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의 3 D가 있습니다. 첫 D는 대화(Dialogue)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존중은 물론 서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무례한 일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을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D는 예수 가르침의 열매와 향기가 있는 삶을 보여주는 모범(Demonstration)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건설(Development)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현장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존중하고 예수님 가르침의 가치관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생각한 것은 진정 건강한 선교의 열매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교와 교회 지원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 저도 강사로 참여했던 '미션퍼스펙티브' 세미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움과 더불어 무엇보다 미션 처치에서 말하는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몇 년 전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라고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력을 보니 교회를 수백 개 세웠다고 하고 집회를 수천 번 했다는 것이 나오기에 머리가 어지러워 사양한 적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주님의 마음이나 머리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철저히 장로교적입니다. 개체교회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의미에서 생산 능력 위주입니다. 감리교는 연대와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의롭고 정당한 분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둘 다 장점이 있고 동시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살리면서 조화를 이루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교지를 방문하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희년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룬다거나 목적지 도착이 아니라 시작이고 여정(순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